



Konus denture를 이용한 소수 잔존치 수복

장 희 원*, 김 상 미 | 국립 경찰병원 보철과

구강내 치아가 발치되어 부분 무치악 부위가 될 경우 전통적인 clasp RPD, attachment, telescope denture, implant 등을 이용하여 수복을 하게 된다.

clasp RPD는 다른 보철물에 비해 설계 및 제작 방법이 간단하고 경제성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삽입 철거시 지대치에 측방압을 가하고 지대치에 우식증과 치주염 유발 가능, 단독 고립치에 clasp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유리단 결손 부위에 적용시 잔존 치조제의 흡수 등의 단점이 있다.

Attachment는 clasp가 없어 심미적이고 삽입 철거시 측방압으로부터 지대치를 보호, 의치 장착시 유지력과 안정성의 증가, 교합력이 가해질 때 지대치에 torque를 감소시키고 교합압을 적절하게 분산시키지만 제작과정이 복잡하고 고도의 가공 기술을 요하며 주기적으로 유지장치의 요소를 교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Implant에 의한 수복은 환자에게 외과적 수술을 동반하며 술후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치료 기간의 연장과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는 면이 있다.

Konus denture는 rigid support를 기본 개념으로 사용하고 내관과 외관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장점으로는 내외관 유지력의 조절 가능, 내외관 유지력의 장기간 안정성, 지대치 주변의 청소가 용이, 잔존치조제의 2차적인 splinting 효과, 의치의 적은 동요, 지대치 상실시 수리가 용이, 지대치가 서로 평행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장착 방향이 자동적으로 결정되어 의치의 장착이 용이한 점 등이 있다.

단점으로는 지대치 삭제량 증가, 지대치의 치경부에 negative winkle로 인한 치태 침착 가능, 외관의 overcontouring 가능성, 전치부에서 치경부에 금속의 노출 가능성, 의치 철거시 내관의 금속 노출로 인한 비심미성 등이 있다. 그리고 가공 과정이 복잡하고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부착 치은이 부족한 증례나 잔존치조제의 흡수가 심한 경우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환자의 구강내 상태를 신중히 고려하여 적용시켜야 한다.

본 증례는 이미 제작된 Konus denture의 유지력이 감소되어 재제작한 경우와 잔존 자연 치열의 치주 상태가 좋지 않아 다수의 치아를 발치후 의치를 제작한 것을 보고하고자 한다.